

# 잇단 성비위·뇌물수수...본분 망각 광주·전남 경찰

사적 연락에 성희롱 발언하고 근무성적 평정 대가 금품 제공 역대 편의 제공 받은 의혹 내사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물의도 시스템 점검해 조직 각성 필요

광주·전남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비위 의혹으로 감찰 내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광주동부경찰의 A 경정이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A 경정이 여성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A 경정이 휴가에서 복귀하는대로 피해자와 분리조치할 방침이다.

A 경정은 "직인 개인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어 떳떳하다"며 "진정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서부경찰서 B 경감도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전남경찰청에서도 비위가 잇따랐다.

여수경찰서 C 경위와 D 경감은 지난 26일 근무성적 평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C 경위는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직속 상관인 D 경감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총경급 간부도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것이며, 욕설을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에는 전남경찰청 팀장급 경찰관이 과거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발인으로부터 수억원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비위도 반복됐다. 지난 5월 2일 목포경찰의 한 파출소 소속 순경이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조치됐다.

지난 4월 8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 순경이 광주 시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3월에는 광주광산경찰 소속 순경, 신안경찰 소속 경감 등이 잇따라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역사회에서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성폭력,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 의혹으로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본적인 비위 예방책 없이 문제를 일으

킨 경찰관을 뺄질식으로 징계 조치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남 지역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 개인을 징계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채용 규모가 늘고, 여경 비율이 높아지는 등 조직은 변화하는데 상관들은 성인지각수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신입 경찰관들은 교육만으로 통제가 안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력한 신상필벌을 통해 조직 각성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긴 연휴, 무료급식소 문 닫으면 끼니 어떡하나”

광주 복지관 28곳 3~9일 휴관 간편식으로 대체식 내놔지만 취약계층 ‘한숨의 추석’될 듯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광주 지역 취약계층은 ‘끼니 걱정’에 놓이게 됐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 사이에 광주 지역 무료급식소가 줄줄이 휴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식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식사 한 끼도 제대로 차리기 어려운 형편에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으니 일주일동안 어떻게 끼니를 챙겨먹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광주시내 따르면 광주 내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는 총 28곳(동구 2곳·서구 7곳·남구 3곳·북구 11곳·광산구 5곳)이며,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제히 휴관할 예정이다.

이곳을 찾는 무료급식 대상자는 총 3222명(동구 470명·서구 653명·남구 710명·북구 854명·광산구 535명)으로, 60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광주 각지의 무료급식소를 찾은 이들은 장기간 휴관 소식에 “배고프고 외로운 명절이 될 것 같다”고 고개를 떨궜다.

북구 오치사랑의식당을 찾은 A(75)씨는 “밥솥에 밥은 할 수 있지만 반찬이 문제다. 요즘 빵 두 개만 사도 1만3000원이 훌쩍 넘어 살 엄두도 못 낸다”며 “식당도 문을 닫을 테니 당분간은 헛반 하나로 버텨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A씨는 편마비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아 국민연금30만원, 기초생활수급비 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다. A씨는 “무료급식 없이 하루하루 식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휴도 길고 끼니도 못 챙기고 혼자 있을 생각하니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TV를 조작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외롭고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같은 급식소에서 만난 B(여·76)씨도 “정부 지원금으로 관리비 내고 나면 식비가 늘 빠듯하다”며 “연휴가 긴데 찾아올 가족도 없고 복지관에도 못 가 벌써 외롭다. 라면이나 두유, 복지관에서 준 레토르트 식품으로 버텨야 한다”고 씩씩해 했다.

C(여·83)씨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낸다. 평소 집에서 식사하는 반찬은 밥과 김치 뿐이고 가끔 간고등어 하나 사서 4~5일 먹는 게 전부인데 추석이라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각 무료급식소는 휴관에 앞서 고구마, 라면, 계란, 두부, 레토르트식품 등 대체식을 제공한

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3~5번의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돌볼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의 식사 공백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전화로 안부를 묻기’처럼 간단한 방법을 통해 독거노인들과의 접촉을 지속하고 연휴 기간 지속적인 돌봄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공공기관 용역 입찰결과로 개인정보 구해 교묘해진 보이스포싱...“감쪽같이 속을 뻐”

광주·전남 5년간 피해 1400억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용역 입찰 결과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포싱을 거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이스포싱, 스미싱 등 피싱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광주·전남 피싱 피해액도 1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의 한 광고 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2일 광주 시 산하 B 재단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포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7월 두 차례 B 재단에서 발주한 간행물 발간 용역, 이벤트 운영 용역 등에 낙찰된 바 있다. 보이스포싱범은 이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 자신을 재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한 업체로부터 흡연측정기 기계를 사려는데 16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며 “50대 중 15대가 당장 필요하니 A씨 회사에서 160만 원에 구매해 선집행해주면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걸어 왔다. 피싱범은 재단 로고와 이름, 직함 등이 적힌 명함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후 피싱범의 요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가 B 재단에 문의해 보니, B 재단에는 피싱범이 됐던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었다.

A씨는 “입찰 사이트에 게시된 낙찰 결과를 보고 수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을 하는 것 같다”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연락을 받았다. 명함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것 같다. 용역을 진행하는 갑을관계라 깜빡 속아 돈을 보내줄 뻔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포싱 피해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기관사칭, 대출사기 등 보이스포싱 피해액은 최근 5년간 14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관사칭 피싱 피해액은 415억원이다.

3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기관을 사칭한 피해액은 2020년 2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27억원, 2023년 37억원, 2024년 13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남에서도 기관을 사칭한 피해액은 2020년 10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26억원, 2023년 27억원, 2024년 108억원으로 증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순천 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한 3형제 체포

순천시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9일 순천시 연향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A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범포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900여 만원과 장부, 예약용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순천시 일대 오피스텔 4곳에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10만~25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모두 형제 사이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 현금 수거 등 역할을 분담해 가며 범행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포 수익금과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